

곡성 문화

2018년(단기4351년) 9월 20일 / 11호

발행인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Tel.061-362-0890



호성 지극한 감동과 눈물로
희생과 사랑의 진수를 가르쳐 준
만고 효녀 심청!

심청의 효가 살아 숨 쉬는 심청고을 우리 곡성은
심청의 고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인 효의 사상을 계승시키고자
'심청효문화축제'가 열린다.

'사이니스타(빛나는 별)를 찾아라!'

광주·전남·제주 지역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에서
우리 '곡성문화원 마당극' 연극단은
심봉사야 황후야 된 심청을 만나 눈뜨는 심청전을 열연했다.
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공동우승의 쾌거를 이루었다.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우에 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사회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선후배 사이에 상호 존중하며,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인사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도(禮度)에 어긋난 행실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한다.” 는 젊은이들의 항변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버릇이 없어.” 걱정하는 어른들의 쓴 소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의 갈등이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미력하나마 삼강오륜의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대하여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보고 성찰(省察)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유유서(長幼有序) : 효경칭찬생활문화 의식 함양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분수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는 뜻입니다.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하여 어른이란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아니라 ‘어른 됨의 지혜로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아이란 ‘어른보다 나이가 어린 제삼자를 아우러서 예사롭게나 낮잡아 이르는 상명하복식 권위와 복종’ 의 말이 아니라 ‘남에게 자기 지식을 낮추어 이르는 겸손한 말’ 이요,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아랫사람에게 격식을 갖추어 대접하거나 가족처럼 배푸는 따뜻한 마음과 존중이 담긴 자애로운 말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노인’ 이 불려일으키는 이미지는 장수(長壽)도 있지만 단연 나이가 많은 ‘어른’ 이요, 오랫동안 윤리도덕으로 존중되어 왔던 ‘장유유서’가 아닐까요? 따라서 장유유서의 정의는 ‘상하의 개념’ 보다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젊은이를 칭찬·격려하며, 어른과 젊은이 세대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예절을 갖춘 장유유례(長幼有禮)의 자세로 상호 존중·존경해야 한다.’ 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면 분수와 질서를 잘 지키고 효경칭찬생활문화 의식도 함양될 것입니다.

현대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문화, 방임·학대, 이혼·미혼모, 한 부모 가족, 노인 가족 등, 급격한 사회적 변천에 따른 핵가족 제도의 발생으로 가족 해체, 취업안과 불투명한 미래, 가치관의 황폐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다원주의 사회는 상이한 생활문화와 가치 및 규범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 끼리 갈등을 빚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젊은이 세대와 어른 세대 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에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와 어른 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유유서(長幼有序)는 현대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요 미풍입니다.

일찍이 공자님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효성심이 지극하고 위계질서가 강한 우리 옛 조상들의 민족성을 칭찬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 주셨습니다. 가족 간의 형과 동생, 오빠와 누나, 어머니와 아버지, 삼촌, 이모 등 호칭어를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인간관계의 위계질서야말로 차례를 중시하는 장유유서의 선물이요, 현대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러한 미풍을 본받아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인간사(人間事)에 도덕(道德)을 위본(僞本)하라

- 불연즉우소(不然則牛笑)니라 -



곡성의 문화창달(文化暢達)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고광운 문화원장과 조준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생과 같은 우매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만 평소 보고 느끼고 했던 일들을 몇 자 적어 봅니다.

크게는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혹은 자기 당을 중심으로, 작게는 자기 개인의 영달(榮達)을 위하여 처신(處身)한 일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도덕성(道德性)을 근본(根本)으로 삼고 살자고, 도덕성(道德性)을 잃으면 소도 웃는다, 너도 인간이냐!!!”
‘도덕성(道德性)을 잃지 않는 삶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와 관계없다’ 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은 재화(財貨)를 갖는 사람들이 못 배우고 겨우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도덕성(道德性)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지, 또 많은 재화(財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더 가지려고 심지어 밀수(密輸)까지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견으로는 도덕성(道德性)을 잃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덕성(道德性)은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근본(根本)입니다.

‘백여 년 전, 만석군(萬石君)의 큰 부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관대작(高官大爵)을 지낸 가문들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 않은가? 그러나 도덕성(道德性)을 잃지 않고 적선을 하는 가문은 적선의 미담이 지금도 전해 오는가 하면 왜놈 정권에 붙어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하고 개인 영달을 꾀하여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오른 그 사람들의 잘못은 지금도 전해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역사인가 싶습니다. ‘나같이 배재천학(排材淺學)한 사람이 도덕성(道德性)을 논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도덕(道德)이라 함은 우리 인간이 귀한 줄 모르고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과 같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이건 어리석은 우생(遇生)이건 간에 산소가 없고 물이 없다면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덕성(道德性)은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근본(根本)입니다.

수천 년이 가고 수만 겁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동해 바다와 같이 변해서는 안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윤리관(倫理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을 사랑하며, 남의 착한 일은 칭찬해주고 남의 잘못은 사랑으로 감싸주며, 선생님은 제자를 정성으로 가르치고 제자는 선생님을 하늘처럼 높이 모셔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의 말씀에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을 한 몸이라고 여겨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간혹 패륜(悖倫)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저 높은 하늘이 자못 무섭기조차 합니다. 우리 모두 도덕성(道德性)을 바탕으로 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잘 지켜서 일반적인 동물이 되지 맙시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되 “인간이 도덕성(道德性)을 잃으면 말이나 소에게 비단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성(道德性)의 중요함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덕성(道德性)을 중심으로 세상의 정화제(淨化劑) 역할을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석학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글 / 곡성문화원회원, 대한노인회곡성군지회 노인회장, 연운당 주인 류종표 삼가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생동감 있는 향교를 만들고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림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곡성향교 32~33대 전교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교(儒敎)는 시조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교(孔敎)라고도 하고, 지켜야 할 인륜의 명분(名分)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명교(名敎)라고도 합니다. 곡성향교는 1413년 태종 13년도에 창건하여 6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곡성향교는 유교의 핵심사상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바탕으로, 유림 개개인의 수양에 힘쓰고, 삼강오륜과 인의예지신을 향한 실천에 앞장서 우리 곡성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곡성은 예로부터 충·효·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의절의 고장으로 충신을 비롯 효자 효부가 많은 곳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패륜과 무질서가 만연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시대적 요청 앞에 전교의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되었으니 우리

사회가 인본중심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림을 비롯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향교를 이끌어 가는 전교로써 성현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유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곡성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생동감 있는 향교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땀 흘려 일하는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곡성문화원과 함께 후학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곡성향교를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의 대화를 통해 향교에 대한 이해와 향교 관련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크고 작은 숙원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2018. 3. 2. 취임사)

글 / 곡성문화원 회원, 곡성향교 전교 임종두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경향 각지의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뜨거운 감격과 엄중한 소명을 안고 제 46대 곡성군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6기에 그렸던 곡성의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3만여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1개 전 읍면에서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는 겸손의 리더십과 민선 6기 성과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곡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허락해주신 앞으로 4년도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저 유근기! 제 자신만의 강점이라면 '열정'입니다. 저의 정치 철학인 신의(信義)와 성실(誠實), 그리고 진정성(眞情性)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겠습니다. 항상 가슴에는 군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귀는 쓴 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눈은 군민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애환을 먼저 보겠습니다. 입은 행복을, 희망을, 화합을 말하겠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히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밝은 늘 현

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 전합니다. 선거가 끝난 순간 우리는, 곡성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경쟁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전진하겠습니다. 혹여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과도 함께 생각하고 손잡으며, '희망 곡성'을 열어가겠습니다. 600여 공직자가 군수와의 소통으로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는 "약쟁소선"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우리 곡성군의 공무원들은 더 이상 "그런 선택이 없애 안 된다", "근거가 없어 어렵다"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행정'에서 '되는 행정, 감동 행정'으로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어 답답했던 군민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꾸려질 제 8대 곡성군의회 의원님들과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곡성에서 태어나 잠깐의 직장생활 외에는 곡성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시절부터 끊임없이 곡성의 미래를 그려왔고, 꼭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저 유근기의 그 꿈은 곡성에서 축복으로 태어나, 좋은 친구를 사귀며, 곡성에서 세계 수준으로 공부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곡성에서 일생의 사랑을 만나고, 문화인의 삶을 영위하며, 곡성에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전하며, 건강한 노후를 누리는, 누구나 한번쯤 살

아보고 싶은 희망이 있는 가족도시 "곡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두 번의 도의원과 지난 민선 6기 곡성군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곡성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민선 7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기치아래, "고향 곡성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지금껏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것처럼 "곡성의 꿈, 우리의 희망"을 일구는 위대한 여정에 3만여 군민께서 공감해 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모아진 그 힘을 곡성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곡성군민 여러분! 이제, 곡성이 다시 시작합니다. 곡성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저의 진심이 만나 곡성이 바뀔 것입니다.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군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 지역 어르신, 선후배, 향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웃음이 가득하고, 바라는 일들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에는 '나눔과 배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2018. 7. 1.)

글 / 민선 7기(제 46대) 유근기 곡성군수 취임 인사

신뢰받는 의회!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정치 실현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서로를 빛나게 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 소외계층의 작은 소리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 8대 곡성군의회가 군민의 큰 여망을 품고 의정활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의 뜻깊고 역사적인 개원식에서 의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선배 동료 의원을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대 의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의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제 8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에 기틀을 다져 오신 역대 선배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시선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경험은 없지만 젊은 열정으로 정말 모범적인 의정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군민 모두가 함께 가는 한걸음으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정치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임기동안 고락을 함께 나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한분 한분은 곡성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군민의 대표이십니다. 군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곡성군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곡성군의회 제 8대 의정 활동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8대 의회는 우선 첫째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큰 힘을 발휘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은 제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송구스럽고 겸허한 자세로 이를 치료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는 사소한 안전이라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조정자와 중재자로서 최상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정책결정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전문성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마다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고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셨습니다. 이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투영되도록 다양한 연수와 벤치마킹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또한 그저 잠시 머물다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에 걸맞게 집행부에 어느 공무원보다 열심히 일하게 하겠습니다. 또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틀을 바꾸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까지도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셋째로 집행부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팜 흘리는 노력에 대한 격려에는 인색하지 않고 쓴 소리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근기 군수님께서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모사업 확보를 위하여 유근기 군수님께서 의회에 인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촉구하고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의 작은 소리까지 의회 안에서 폭넓게 수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외로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복지는 더욱 풍부한 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진 곳마다 온정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 등 수많은 일들이 놓여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만 2백여 곡성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의회를 만들어 냅시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큰일을 펼쳐야 하는데 하나의 작은 밑알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보이지 않지만 싹을 틔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공한 지방자치로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성공한 지방자치의 싹을 틔울 것을 다짐하면서 제 8대 곡성군의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곡성의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9.)

글 / 제 8대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 개원사



제 3회 곡성효문화대상 수상

문화예술부분

(전) 곡성향교 조덕기 전교님



문화예술부분 효문화대상은 곡성향교 전교로 열정과 보람 가득 최선을 다해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 조덕기(73세) 전교님이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조덕기 전교는 우리 고장 목사동면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석곡에서 살아왔다. 일생을 오로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봉사와 사랑으로 헌신해 왔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을 수료(1983)하고, 범민족올림픽추진협의회위원(1985), 곡성라이온스클럽회장(2000), 곡성우체국고객대표(2003), 곡성문화원이사(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2017)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곡성향교 유림으로 장의, 위생계장, 유도회장, 전교를 역임하면서 곡성 유림의 조직화와 향교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등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귀감이 되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거듭나는 벚찬 현장 곡성향교

조상의 얼이 담긴 곡성향교이지만 자꾸만 떠밀리는 유림정신이 안타깝기만 했다. 마침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곡성군·곡성문화원·곡성교육지원청·곡성향교가 하나 되어 곡성관내 유·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향교문화의 체험형 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이 매우 다채롭게 진행했다. 인성·예절 선비문화 수련과 과거보기의 한마당 또한 학교교육 연계형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했다. 곡성향교가 유·초·중학생에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문화재 누리길·설렘길·마실길로 나누며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축제 한마당, 과거 시험보고 신나게 놀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향교가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중심체로 거듭나서 지역의 정서를 담아 조상들의 숨결이 느껴지고 향교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공로가 지대하다.

심청축제 홍보대사! 살아 숨 쉬는 곡성향교로 큰 호평

또한 매년 심청축제가 열리는 기차마을 광장에서 곡성향교 유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심청축제 전통혼례와 심청축제 시집가는 날」 행사에 참여했다. 곡성을 시가지 일원에서 펼친 「과거급제 행렬」 에도 적극 참여하여 곡성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과 향우들에게 곡성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도 공헌했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은 물론 중앙지에도 보도되어 살아 숨 쉬는 곡성향교로 큰 호평을 받게 되었고, 향교·서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2017)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에 적극 앞장

효문화대상의 주인공인 (전) 조덕기 전교는 곡성문화원 이사로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온 효행을 바탕으로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효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고 강조하는 집념은 누구보다 지대하다. 그가 아직도 못다 한 곡성향교의 애정과 숙원사업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곡성군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교육문화부분

곡성을 최종출 선생님



교육문화부분 효문화대상은 1969년 우리 고장 곁면 흥산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 1997년 뜻하지 않은 병으로 공로퇴직하기까지 28년간 뜨거운 교육애와 봉사정신으로 지역 후진 양성에 기여한 최종출 선생님(73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제자들과 선후배들에게 존경 받는 참 스승!

최종출 선생은 곁면 흥산초등학교 발령을 시작으로 곡성동초등학교, 곡성서초등학교,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재직 중에도 주경야독을 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좌우명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내 아들과 딸처럼 기르자” 였다. “정말로 열정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고향 후배인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했다. 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모든 면이 향상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보람을 느꼈다. 참으로 즐겁게 생활했다.” 고 제자들과 선후배님들에게 이구동성으로 칭찬의 말을 듣고 있다. 곡성군교육자회(술회) 공로상, 곡성군교육회장상 외에도 교연연구 및 실천 우수사례 발표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2011년 봄, 곡성중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총동창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자랑스러운 곡성중앙인 25회 졸업생 정래혁 선배님과 함께 공로상을 받았다. 20대와 30대에 모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젊음을 다 바쳐 인정받은 공로였다. “내 생애에서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던 날이었다.” 고 선생은 말했다. 평소 애함심이 투철하고 글쓰기에 재능이 뛰어난 최종출 선생은 방송을 비롯,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 고장 곡성을 알리는데도 힘썼다. 그뿐이 아니다. “불우한 친구를 10년간 말없이 돕고 있었다.” 는 미담도 이제야 전해지고 있다.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가진 것은 없어도, 슬픔과 어둠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힘들 때 손잡아준 친구들이 많아서 내 마음 만큼은 큰 부자입니다” 는 선생님은 참 스승이시다.

효행부분

곡성중앙초등학교 한○○ 학생

너무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두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한○○(11세) 어린이가 자랑스런 효행부분 대상을 받게 되었다.

효행상의 주인공 한○○ 어린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모가 단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인사를 잘하여 이웃 어른들로부터 예절 바른 어린이로 칭찬이 자자하다. 학교생활에도 구김살 없이 친구들과 정답게 지내며 공부도 열심히 하여 여러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의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모범적인 어린이다.

현재 주인공은 곡성중앙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불과 11살의 나이이다.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곡성의 외조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생계를 담당했던 어머니마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남동생과 여동생을 돌보며 삼형제가 살아야만 하는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이 되고 말았다.

“우리 한○○ 손녀는 아직은 애기지만 어른 같아. 즈그 할아버지 심부름도 잘하고, 학교에 갔다오면 동생들 목욕도 시키고, 양말도 빨아주고, 방청소도 잘해. 엄마 아빠도 없지만 동생들한테 잘 한 것 보면 꼭 어른 같당께. 아이고 그냥 짠해서..... 동네 사람들 어른들한테 어찌나 인사를 잘하던지 동생들도 따라서 잘 현당께.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들어요.”

외할머니의 칭찬과 함께 살아갈 외손자손녀들의 앞길을 걱정하고 성공을 비는 소망이 듬뿍 담겨있는 말씀이었다.

“한○○ 어린이는 항상 볼 때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독서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무척 좋아하고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글 쓰는 솜씨가 대단해요.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전혀 구김살 없이 오히려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요. 특히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절바른 어린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곡성문화원 자운영독서회장이면서 곡성중앙초등학교 방과 후 토론·논술 교사인 고동실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 어린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곡성문화원 효문화대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효행 사례를 접하면서 어린 나이에 슬픈 가정사를 겪어야하는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훌륭한 거목으로 성장해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한○○ 어린이의 희망찬 앞날에 영광과 축복 가득하기를 빈다.



“불편한 몸”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화 실천에 앞장선 참 교육자

퇴직 후에도 곡성 학정리 최종출 선생은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약수터 및 등산 산책로 주변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은 일념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산책 나온 주민들의 애완견, 방견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해 염려하고 계도했다. “곡성군이 이만큼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된 것도 곡성이 자랑으로 내놓은 오염되지 않는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일 것입니다 (2016. 8.28).” 고 역설하신 최종출 선생은 ‘후덕한 사람, 故 학산鶴山 최영철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중철아,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좌우명이었고 생활신조였다고 한다.

평생 동반자로 고티를 함께해 준 아내에게 바친 [사랑하는 나의 아내] 감사의 노래

당신은 스물다섯에/ 6남매 장남인/ 나에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였고.
당신은 천사요/ 내 나이 마흔 살에/ 불치병에 걸려서/ 마음고생 얼마나 컸소.
당신은 나대신/ 아들 둘 딸 하나/ 자기 능력 발휘하고/ 스스로 살아가게 길러 놓았소.
당신은 고생이 많았소/ 이제 편안히 살아가요/ 아들과 딸이 당신의 고생/ 모두 알고 있단요/
당신이야! 나의 병으로/ 갖은 떨시 다 받으며/ 잃은 것 수없이 많지만/ 당신과 가족이 내 곁에 남아 있소.
당신의 나이 쉰다섯/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는/ 뒷모습 보았을 땐/ 내 가슴이 아프단요.

5대째 보관한 고서(古書) 곡성문화원에 기탁(寄託)해 화제


곡성읍 학정 1길 학림동 입구에 들어서면 하천 다리 사제일교(師弟一橋)옆에 조그마한 비석이 서있다. 이비는 2016. 3. 4. 봄, 마을주민들이 세운 고(故) 학산(鶴山) 최영철(崔永喆) 선생의 공적기념비이다. 이 분의 자제(子弟)요, 23년간 교직에 봉직한 최종출(71세) 선생은 학림동 현 가옥에서 5대를 이어 기거하고 있다. 이번에 집안 대대로 보관해 온 방대한 분량의 고서(총 57권)를 곡성문화원에 기탁했다.



곡성문화원, '과거시험보고 놀자'

-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

곡성군과 곡성문화원 주관으로 5~10월까지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이 곡성향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곡성군 초·중학생들에게 조상들의 옛 전통문화를 엿보게 하고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대표적 소산인 향교문화유산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곡성문화원은 자유분



201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란?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에 지방에 세워진 학교이자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현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가 발전하여 크는 지역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만들어 졌다.

- 기간 및 장소 : 2018년 03월~11월, 곡성군(곡성향교, 덕양서원, 옥괴향교 등)	- 주최 : 곡성군
- 대상 : 유·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인 등	- 주관 : 곡성문화원,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 주요내용 : 곡성향교 워킹맨, 오지리 인문학산책, 예술기와의 만남, 과거급제 행렬	- 후원 : 문화재청, 전라남도청

방한 초중학생들에게 예의범절과 충효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친근감 있게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축제한마당, 과거시험 보고 놀자” 라는 ‘곡성향교 워킹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유·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곡성향교를 방문해서 지역 유림들과 전교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문화원에서 계획한 향교관련 미션게임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곡성향교를 처음 방문한 초등학생들은 낮 설은 건물과 두건을 쓴 유림복장을 보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외삼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포졸들이 차례로 줄을 세우면서 친언니 오빠같이 친근감 있게 안내해준 탓에 금세 장난기가 발동된다. 외삼문은 현재와 비교하면 학교 정문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선 것이다. 향교와 서원의 외삼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우측 문으로 출입을 해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경쾌한 전통음악이 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편하게 해준다. 미리 학생들을 기다렸던 훈장선생님이 익살스런 표정과 유머로 다섯 가지 미션(임무)을 설명해준다. 첫 번째 임무는 명륜당에서 향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라. 임종두 곡성향교 전교님은 학생들을 친손자를 대하 것처럼 더욱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명륜당으로 안내해 준다. 향교의 명륜당은 지금의 교실, 즉 강의실인 셈이다. 이곳에서 유생복 체험을 한다. 포졸들과 선생님들이 유생복 체험을 도와준다. 유생 복장을 한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면 전교(교장선생님)님이 곡성향교에 대한 역사와 의미, 하고 있는 일 등에 초등학생들이 최대한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준다. 두 번째 임무는 곡성향교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 향교 내 곳곳에 숨겨진 QR코드로 팀 이름과 현인들의 정보를 알아낸다. 세 번째, 보물을 찾아 과거시험에 응시하라. 학생들은 뛰지 않고 워킹맨이 되어 향교 내에 미리서 숨겨둔 종이쪽지를 찾아서 임무를 수행한다. 네 번째, 팀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윗놀이, 제기차기, 투호, 활쏘기를 빠른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한다. 다섯 번째 최종 임무는 등에 붙은 이름표를 떼서 획득한 카드로 미션지를 꾸민다. 팀원들이 획득한 카드를 모아 재치 있고 창의적인 글자를 완성 하면 우승이다. 이처럼 곡성향교 워킹맨 프로그램인 “축제한마당” 과거시험보고 놀자는 TV속 예능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지리 인문학 산책

농촌 통사의 마을 오지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마을로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구석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흔적과 문화유산이 곳곳에 숨어있다. 마을 돌며 문화유산을 찾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곡성문화원 할머니 연극단 마당극, 광주, 전남, 제주 예선에서 공동우승 '쾌거'

- 9월 11일 실버문화페스티벌 전국대회 본선 진출 -



농촌할머니들로 구성된 우리 곡성문화원 연극단 '곡성'이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광주·전남·제주 지역예선에서 공동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사이니스타(빛나는 별)를 찾아라'를 슬로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각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 지난 7월 6일 여수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예선전에는 모두 25개 팀이 참여,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을 보였다. 곡성문화원 마당극 연극단은 마당극 심정전 중 심봉사가 황후가 된 심청을 만나 눈뜨는 대목을 열연했다. 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시골에서 농촌 일을 하며 짬을 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큰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월 11일 본선에 진출하였으나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중앙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겨야만 했다.

곡성문화원 '소설가 오정희 작가와의 대화' 성료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이 2018년 향교·서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소설가 오정희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지난 달 30일 시청도서관에서 성료로 전개됐다. 곡성문화원 주부독서모임인 '자운영' 회원들과 오 작가의 다수 팬 30여명이 함께한 작가와의 대화시간은 세 시간이 짧을 정도로 진솔하고 격이 없이 진행됐다.

오 작가는 서두에서 본인이 문단에서 소설가로 인정받기 이전에 어둡고 힘들었던 삶의 여정을 독자들에게 거침없이 토로했다.

분명히 소설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부모 밑에서 엉겨 붙어 반 농팽이 같이 밤과 낮을 거꾸로 생활했던 시절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을 대하는 것, 글쓰는 데만 몰두하고 싶었지만 주부로서 해야 할 목록지 않은 현실 상황들, 동료인 최명희 작가가 발표 표해 화제를 모았던 '혼불' 초기작품을 읽은 뒤 찾아온 비교되는 자괴감 등을 털어놓았다. 광주에 살면서 소설가로 이제 막 등단한 독자에게는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라며 조금씩이라도 글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책상에 앉은 후 백지장에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작품 속에서 햇빛에 대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표현에 감동을 받은 자운영회원의 질문에는 "그때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오 작가는 글 쓰는 방법에 대해 "일단 책상에 앉은 후 백지장에 무조건 써내려가라" 고 주문했다. "백지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져도 조금씩이라도 쓰는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오정희 작가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완구점 여인' 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2003년 제16회 리베라루트상, 1996 제 15회 동인 문학상, 1979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바 있다.

글 / 곡성문화원 간사 이옥희





東學革命 義兵將 奇鳳鎮 將軍 記念碑

동학혁명 의병장 기봉진 장군 기념비 제막식

기봉진(奇鳳鎭) 장군(1860~1895)은 곡성 죽곡 반송 출신으로 곡성의 동학 접주가 되어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2차 봉기였던 삼례 집회에 참여하여, 구례 용방면 토지면 일대에 은거하면서 일본군에 항쟁활동을 하였다. 제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항복하지 않고 효수형을 받았다(36세). 지난

2018년 3월 24일 곡성군 죽곡면 반송마을에서 그분의 후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경향각지 내외귀빈들을 모시고 동학혁명 의병장 기봉진 장군 기념비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기념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학혁명 의병장 기봉진 장군 기념비

기봉진(奇鳳鎭) 장군님은 1860년 5월 25일 곡성군 죽곡면 반송리에서 태어나, 1892년 봄 남원에서 도인으로부터 도(道)를 듣고 깨친 곡성의 도인이자 첫 동학접주로서, 하늘을 모신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도를 펼치시며, 겸량지덕(謙, 良之德)의 삶을 평생 강조하셨다. 장군의 포교 포덕 활동으로 오곡면 강치언, 이병춘, 김기영, 전흥기 등과 구례의 허탁, 임양순, 임태순, 조경묵, 우공정이 입도하고 이들의 포덕으로 수백 호가 전도됐으며, 조석하, 조재영, 강일수, 김현기 등 4인의 접주를 배출케 되었다. 1894년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자, 왜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자주 민족정신의 신념으로 제 2차 봉기에 자진 참여하여 각지에 사발통문으로 동학군을 모으니 그해 9월 죽창과 곡괭이 낫 등으로 무장하고 오곡면 오지리에 모인 동학군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백마를 타고 장도(長刀)를 맨 장군이 군을 이끌고 전주 삼례 봉기에 참여 후 앞서 간 동학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퇴하여 각기 흩어지게 되자,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지리산 용방면 토지면 일대에 숨어들어 일본군에 대한 항쟁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잠깐 고향을 다녀오기 위하여 오곡면 침곡리를 지나갈 때 일본군 회유에 빠진 제자의 밀고로 미리 매복하고 있던 일본군의 총에 맞고 붙잡혔으나 항복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흘간이나 나무에 매달아 고문해도 듣지 않자 끝내는 1895년 2월 3일(음) 효수형에 처해졌다. 이후 장군의 후손들은 역적으로 몰려 조상의 이름을 도진(叢鎭)으로 개명하여 족보와 호적에 올려야 했고 일제강점기 내내 핍박과 억압을 당한 암울하고 참담한 시대를 지내야 했다. 다행히 독립된 나라가 되어 역사적 사실이 바르게 정리되고 재해석 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7177호(2004. 3. 5. 제정, 2004. 9. 6 시행)로 기봉진장군의 명예가 회복되어 이제야 이 비문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동학농민군은 항일의병항쟁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그 맥락은 3.1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 우리가 다시는 이처럼 나라 잃은 슬픔이 없길 바란다. 2018년 3월.



추진위원

위원장 기경도. 대항강 권역 추진위원장 조진주.

위원 행주기씨 대종중 일동. 기우영. 기홍도. 기녹도. 심중식. 박용순. 박동순. 심성식.

심용식. 심인식. 심을식. 이원호. 김희문. 이길재. 이판재. 김영윤. 심장환. 기공도. 기노성. 기용우.

글씨 평산 심중식. 글 동강 박용순



헌시 '기봉진奇鳳鎭 장군'

- 청곡淸谷 기덕문(우덕) -



이 강토를 지키려다
이 민족을 구하려다
임은 가셨다눈을 못 감으시고
우릴 잊지 못하시고
구천을 맴돌았다

이제사
123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밝은 세상에 나오셨으니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마음 편안히 잠드소서
장군님이시여

이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칭송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합니다
자랑스런
기봉진 장군님
노래를



함양 문화유적 답사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 곡성문화원은 문화시대의 행복한 주역이 되고자 매년 두 차례 농한기를 택하여 전국 각지의 소중한 문화유적지와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찾아 나누며 즐기는 문화체험 나들이를 나신다. 올해에도 바쁜 일상을 접고 6월 28일, 100여명의 회원들이 관광버스에 올라 그 옛날 비록 가난했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지고지순 했던 우리 선현들의 자취를 그려보며 지리산권역 함양 문화유적답사 길에 올랐다.

천년의 숲, 함양상림원

관광버스 2대로 곡성을 출발하여 남원을 거쳐 88고속도로를 달릴 때까지만 해도 억수같이 소나비가 쏟아졌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오늘 여행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함양에 내려 문화답사를 할 때면 비가 그치고 마치 좋은 날씨가 될 거라 믿습니다.” 2시간 여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고장 함양에 도착했다. 비가 그쳤다. 하늘도 우리 일행을 도와주셨다. 먼저 걷기 좋은 평탄한 산책로와 땀을 식혀줄 시원한 숲속 함양상림원 길을 걸었다.



함양상림은 함양읍 서쪽 위천(渭川)강가에 있는 숲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원 선생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대관림(大館林)이라 불리던 숲이 홍수로 가운데 부분이 유실되어 상림(上林)과 하림(下林)으로 나누게 되었고, 현재는 상림만이 예전의 모습대로 남아 ‘상림’이라 불리고 있다. ‘천년의 숲’이라 불리는 함양상림은 사계절 아름답지만, 단풍색이 고운 늦가을과 연꽃 만발한 여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상림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맑고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사랑나무’라고도 불리는 ‘연리목’ 두 그루를 만났다. 느티나무와 개서어나무의 뿌리가 함께 붙어 자란 이 연리목은 부부간의 금슬을 좋게 하고, 연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해설가의 말이다. 이곳 함양상림에는 2만여 그루나 되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상림의 끝자락에는 고운(孤雲) 최치원을 기리는 사운정(思雲亭)이라는 정자도 있어 쉬어가기에 좋았다. 숲 우측에 조성된 연꽃방죽에는 수련과 흥련으로 아름다웠다.

소나무향 그윽한 남계서원, 일두 정여창 선생을 추모하며...

선비 문화탐방 남계서원은 온통 아름다워 적송 숲으로 둘러싸여 소나무 향이 그윽하다. 남계서원에 들어서는 순간 소나무처럼 바라만 보아도 옛정취가 정겹고 편안함을 준다. 이 서원은 1552년 조선시대 학자 일두 정여창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방 유생들이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이다.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이자 선현들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서 동제인 양정제와 애연헌에서 유생들이 거쳐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불타다가 1903년 복원했다고 한다. 1868년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별사만 훼손되고 서원은 그대로 존속하여 지방교육의 일익을 맡았다.



탁영 김일손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청계서원

청계정사는 김일손 선생이 수학했던 곳이다. 1905년 유림들이 남계서원 바로 옆, 이 터에 그의 유택비를 세우고 1915년 청계서원으로 명명했다. 조선 연산군 때의 학자 탁영 김일손을 기리기 위한 서원으로선비문화 탐방에 적합한 곳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선비정신을 체험하러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하나! 지리산 제일문



함양골 서암정사로 가는 길, 지리산제일문 위에 올라서면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주변에 유명한 시인들의 시비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 지역의 역사적인 자취를 엿볼 수 있어 좋았다. 이곳에서 오도재를 내려가는 길목에서 바라본 구불구불한 도로와 다랭이 논들이 함께 어우러져 너무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된 곳임을 짐작할만하다. 벽송사와 그 압자인 서암정사로 가는 길목에는 장승도 많았다. 오도재를 내려가는 길은 환상적이었으나 날씨가 흐려서 아쉽기만 했다.

불교예술의 극치 서암정사



경주 석굴암을 방불케하는 함양 서암정사는 지엄대사가 중창한 고찰인 벽송사의 부속 암자이다. 원응스님이 자연의 암반에 굴을 파고 들어가 불교의 이상향의 세계를 상징하는 극락세계를 그린 조각법당을 10여 년간에 걸쳐 완성하였다고 한다. 사찰 안에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대방광문, 아미타여래가 주불이 된 석굴법당, 광명운대, 사자굴 등이 있다. 주변 지리산의 장엄하고 산자수려한 산세와 천연의 암석이 조화를 이루어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불교예술의 극치라고 평한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시간은 힘이 생긴다.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장수고을 곡성이 자랑스럽다.

지리산권 함양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일행은 숨어있는 곡성의 소중한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힘써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문화유적답사에 참여해 주신 80~90대 문화가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시간은 힘이 생긴다.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장수고을 곡성이 자랑스럽다.

글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追慕一蠹鄭汝昌先生 추모일두정여창선생

巨儒仁德 世間明(거유인덕 세간명) 큰 선비 훌륭한 덕은 세상을 밝혔고
私淑瞻望 記夢成(사숙첨망 기몽성) 스승으로 모시고 꿈에도 숭모렸네
志友寒暄 修己學(지기한원 수기학) 지우 한원당은 소학으로 몸을 담고
師朋一蠹 讀經誠(사봉일두 독경성) 동학의 일두선생 경학으로 성의다했네

迷宮晏席 無在極(미궁안석 무재극) 패주연산 주지육림 참소극형 없었다면
北塞圍籬 不得輕(북새위리 불득경) 종성당 귀양살이 어찌 쉽게 갔겠는가
甲子半千 身後事(갑자반천 신후사) 갑자년 세상 떠난후 오백년의 일
咸陽故宅 嶺南榮(함양고택 영남영) 함양의 옛집 영남의 영광이네

一蠹 鄭汝昌 咸陽故宅 文獻公 일두 정여창 함양고택 문헌공,

咸陽 藍溪書院 故宅 谷城文化院踏査 함양 남계서원 고택 곡성문화원 답사 시 6월 28일. 한시 / 곡성문화원 회원, 국사편찬위원회자료조사위원, 오봉 梧鳳 정득채 鄭得采

訪濫溪書院 방남계서원

吾儕訪院 是炎陽(오제방원 시염양) 우리들 서원 방문 뜨거운 별에
明德先生 教化長(명덕선생 교화장) 선생의 밝은 덕 교화가 오래였네
脩竹青青 饒歲月(수죽청청 요세월) 푸르고 푸른 대나무 많은 세월 더했고
老松落落 闕風霜(노송락락 열풍상) 높고 높은 노송은 모진 풍상 겪었네

高標道學 如清水(고표도학 여청수) 인품 높은 도학은 맑은 물 같고
純潔文章 似淡香(순결문장 사담향) 순결한 문장은 맑은 향기와 같네
百代宗師 進慕地(백대종사 진모지) 백대 종사 추모하는 곳에
玲瓏景色 萬傾洋(영롱경색 만경양) 영롱한 경치만경에 차 넘치네





- '효와 심청축제'의 장으로 초대하는 편지 -

금의환향 황후 심청, 길을 열다



“금의환향 황후 심청, 길을 열다” 라는 주제로 하는 심청축제가 오는 10월 6일(토요일)부터 9일(화요일) 한글날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심청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심청의 효가 살아 숨 쉬는 효의 고장 곡성에 오면 만고 효녀 심청과 가을장미, 그리고 섬진강에 있는 도깨비어살의 실제 주인공인 마천목장군을 만날 수 있다. 심청하면 어느 누구나 연대 미상의 설화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존인물이라고 주장을 해도 누가 크게 항의를 한다거나 심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

는 일 자체가 백행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곡성군이 효의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백제시대에 창건한 천년고찰 관음사의 연기설화를 토대로 곡성군에서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한 효녀심청이 곡성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심청전의 원류라고 주장하면서 심청축제를 18년째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사에는 사찰의 내력이 적힌 ‘관음사 사적’ 이 있다. 여기에 전하는 연기설화를 보면 장님 아버지를 둔 효녀 원홍장이 흥법사의 불사를 위하여 '성공' 스님에게 시주되고 스님을 따라 나섰다가 중국 진나라의 사신을 만나 황후가 되었다. 황후는 고국을 못 잊어하며 불탑과 불상을 만들어 보냈고, 황후가 보낸 금동관음보살상을 옥과 처녀 성덕이 발견해 모신 곳이 관음사이고 관음사의 연기설화가 심청축제의 모태가 된 것이다.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천사장미원이다. 전국에서 최다 품종과 유럽형 정원 장미를 보유하고 있는 천사장미원 또한 부모님께 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섬진강 기차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장미공원은 4만㎡의 부지에 1004품종의 38,000주의 장미를 식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럽정원 장미 품종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장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연인들의 프로포즈 라고 할지 몰라도 향기로운 가을장미향을 부모님께 선물하는 자체가 큰 효도를 한 것이다. 꽃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한다.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꽃 한 다발을 선물해 보라, 자식 앞에서는 쓸데없는 짓한다고 해도 당장 친구들에게 자식 자랑을 할 것이다.

꽃 중의 꽃은 장미라고 단언한다. 꼭 미국과 영국의 국화가 장미라고 해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향기이다. 카네이션은 향기가 없다. 또한 튜울립은 꽃잎과 색깔이 단조롭고 향기도 은은하지가 않다. 국화는 꽃향기는 은은하고 생명력도 강하지만 일부 품종(대국,개량종)을 제외 하면 꽃잎이 적다. 장미꽃은 향기가 역겹지 않은 진하면서도 은은한 향이다.



곡성이 효의 고장이라는 이유에는 조선 태종 때 큰 공을 세워 공신이 된 마천목장군의 섬진강 도깨비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린 시절 마천목이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섬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공양했다는 효심 깊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유년시절 마천목의 도깨비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마천목이 젊어서 곡성 오지면 당산마을로 이사한 뒤에 부모에 대한 효성이 더욱 지극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섬진강 하류 두가천에서 고기를 잡아서 부모를 공양하고 있기 때문에 어살을 막을 뜻이 있으나 강이 넓고 흐름이 급하여 하류는 강둑을 거닐며 형세를 살피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둥글게 생긴 작은 돌이 푸르고 기이하게 주어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깨비들이 뜰아래서 절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의 장수이오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니 마천목이 말하기를 “내가 강에 어살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살을 만들어 준다면 너희 장수를 돌려주리라.” 하여 도깨비들이 어살을 막아주고 장수 돌맹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마천목의 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차마을 내에 있는 요술랜드에서 만날 수 있다. 심청축제에서 심청의 효와 향기로운 가을장미, 그리고 마천목과 섬진강 도깨비들을 제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덤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 곡성문화원 회원, (전) 곡성군의회 의원 주성재

제19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2018. 09. 20 ~ 10. 20

글짓기 부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금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은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전라남도지사상 동상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곡성군수상 장려상 곡성문화원장상 그림 부문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금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은상 전라남도지사상,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동상 곡성군수상, 곡성문화원장상 장려상 곡성문화원장상	주최 곡성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 곡성군 응모자격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응모부문 글짓기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외 다수 그림부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외 다수 공모주제 효(孝) 공모요령 완성된 작품 1부 (형식 규격 제한 없음)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접수기간 2018년 9월 20일(목)~10월 20일(토) 접수처 5753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곡성문화원 사무국) 발표 2018년 11월 9일(금) 문의처 곡성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곡성문화원 사무국 TEL (061) 362-0890, FAX (061) 363-7300
--	---

“금의환향” 황후 심청, 길을 열다

황후심청 '금의환향' 피리이드
공양미 삼백식 모으기
초대가수(인순이, 남진, 태진아, 구정모 외)

제18회
곡성심청축제

THE 18TH GOKSEONG SIMCHEONG FESTIVAL
2018. 10. 6(토)~9(화)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문화원 후원

곡성문화원 후원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안내:문의 (061)360-8252
www.gokseong.go.kr/tour